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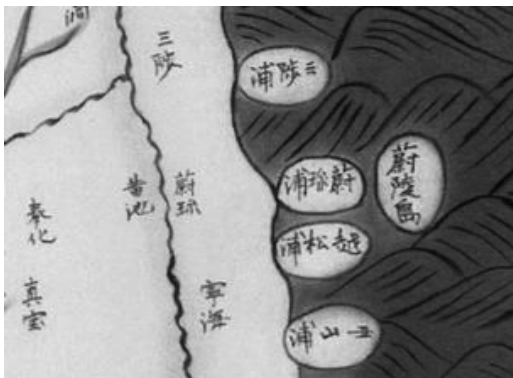
제3절 역사지리

1. 고지도(古地圖)

울진군은 2020년 현재 2개의 읍과 8개의 면을 관할하고 있다. 10개의 읍면은 조선시대 강원도 울진현(蔚珍縣)과 평해군(平海郡)의 영역에 해당된다. 구 울진현은 조선시대 상현내면(上縣內面), 하현내면(下縣內面), 근북면(近北面), 원북면(遠北面), 근남면(近南面), 원남면(遠南面), 서면(西面) 지역으로 현 울진읍(蔚珍邑), 북면(北面), 근남면(近南面), 매화면(梅花面), 금강송면(金剛松面), 죽변면(竹邊面)을 이루고 있다. 구 평해군은 조선시대 상리면(上里面), 하리면(下里面), 남면(南面), 근서면(近西面), 원서면(遠西面), 근북면(近北面), 원북면(遠北面) 지역으로 현 평해읍(平海邑), 기성면(箕城面), 온정면(溫井面), 후포면(厚浦面)을 이루고 있다.

울진군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대축척 전국지도 등의 고지도에서 울진현과 평해군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18세기부터 『해동지도(海東地圖)』(보물 제1591호)·『조선지도(朝鮮地圖)』(보물 제1587호)·『여지도(輿地圖)』·『광여도(廣輿圖)』·『1872년 지방지도』 등 여러 유형의 「울진현지도(蔚珍縣地圖)」와 「평해군지도(平海郡地圖)」가 제작되었고, 19세기에는 『청구도(靑邱圖)』(보물 제1594호)·『동여도(東輿圖)』(보물 제1358호)·『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보물 제850호) 등 대축척 전국지도와 읍지의 부도가 편찬되어, 울진군 지역의 조선시대 모습은 당시 편찬된 지도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 조선 전기



<그림 25>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울진 부분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6> 『동람도』 「강원도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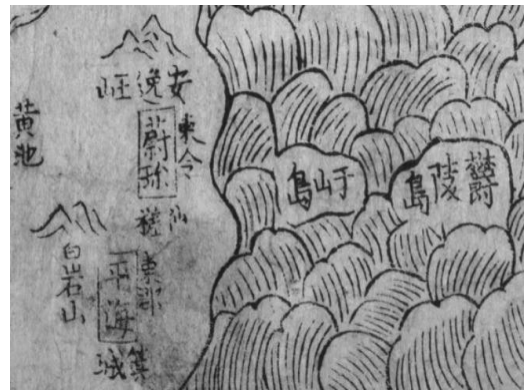
현재 전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1402년(태종 2)에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이다. 이 지도의 조선도 부분에 표시된 울진(蔚珍), 울진포(蔚珍浦), 월송포(越松浦), 울릉도(蔚陵島)¹⁹가 울진 관련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그림 25>. 또한 조선 전기의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그린 세계지도인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보물 제1590호)에도 울진과 평해가 기재되어 있다. 또,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동람도(東覽圖)』 「강원도지도」에는 울진·평해와 함께 안일왕산(安逸王山)과 백암산(白岩山), 울릉도(鬱陵島), 우산도(于山島)가 기록되어 있다<그림 26>.

2) 조선 후기



<그림 27> 『팔도지도』 「강원도지도」
부분도(한貴古朝61-20)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28> 『동국지도』 「강원도지도」
부분도(일사古912.51-D717)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세기부터 『동람도』 유형의 도별도가 많이 제작되는데, 대부분의 「강원도지도」에서 울진 관련 기록에는 서울까지 10일 거리, 별호(別號)인 선사(仙槎)·우진야(于珍也), 관원으로 현령(縣令) 외에도 안일왕산, 울진포, 울릉도, 우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평해에는 서울까지 11일 거리, 별호인 기성(箕城)·근을어(斤乙於), 관원으로 군수, 월송정(越松亭, 月松亭), 망양정(望洋亭),²⁰ 백암산, 월송포 등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27>, <그림 28>.

그리고 도별도 또한 많이 제작되었는데,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

19. 울릉도는 1900년(광무 4)에 강원도 울도군(鬱島郡)으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울진현(1884년 이전)과 평해군(1884년 이후)에 소속되어 있었다.

20. 망양정(望洋亭)은 1860년(철종 11)에 평해군 원북면 망양리에서 울진현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평해군에 그려져 있다. 김정호가 1861년에 편찬한 『대동여지도』에도 망양정은 평해군에 소속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地圖』 유형 도별도 중 「강원도지도」에는 울진현에 안일왕산, 울연산(蔚然山), 고초산(高草山) 등이, 평해군에 백암산, 금장산(金莊山), 주령(珠嶺), 삼승령(三乘嶺), 월송포, 망양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29>.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통의 지도에는 울진현에 현내면·근남면·원남면·근북면·원북면·서면 등의 면 지명과 삼방산(三方山)·오성산(烏城山)·백병산(白屏山)·고초산·울연산 등의 산 지명, 갈현(葛峴)·직치(直峙) 등의 고개 지명, 흥부역(興富驛)·수산역(守山驛)·덕신역(德神驛) 등의 역 지명, 부천(富川, 흥부천의 오기)·비천(飛川)·족금천(族錦川) 등의 하천 지명 등이 표시되어 있다. 평해군에는 하리면·근북면·원북면·근서면·원서면·남면 등의 면 지명, 현종산(懸鐘山)·부곡산(釜谷山)·사발산(沙鉢山)·금장산·후리산(厚里山) 등의 산 지명, 망양정, 월송정, 금진창(金津倉), 백암산성(白巖山城) 등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30>.



<그림 29> 『팔도지도』 「강원도지도」
울진·평해 부분도(古4709-14)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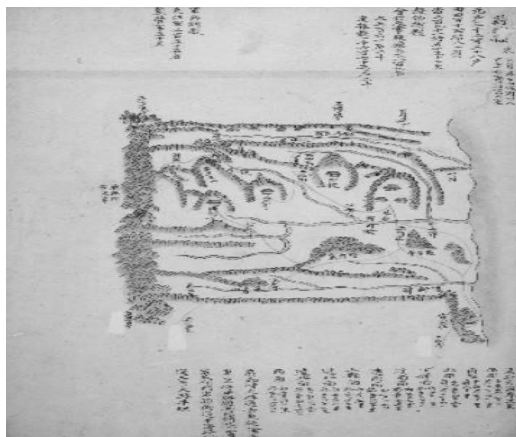
<그림 30> 『조선팔도지도』 「강원도지도」
울진·평해 부분도(古4709-54)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편, 18세기 영조 대부터 여러 유형의 울진현과 평해군을 그린 채색 필사본 군현지도가 제작되었다. 가장 많이 제작된 형태는 회화식 군현지도인데, 홍문관에서 제작된 『해동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41)를 비롯하여 『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韓貴古朝61-3), 『광여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여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68), 『지승(地乘)』(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42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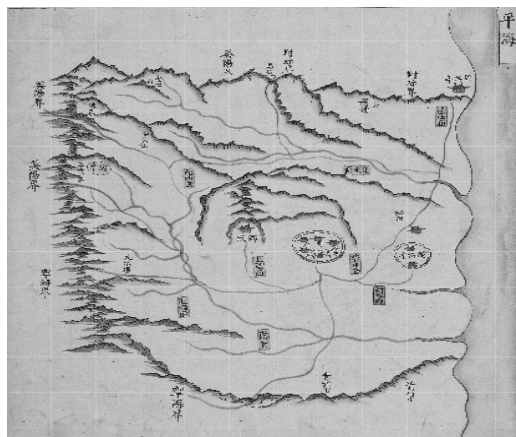
「울진현지도」에는 군의 서쪽을 남북으로 지나는 낙동정맥에 백병산과 고초리치(高草里峙)가 있으며, 여기서 분기한 줄기가 삼척 경계를 따라 입봉(笠峯)과 갈현을 지나면서 해안까지 이어지고, 평해 경계를 따라서도 해안까지 산줄기가 묘사되어 있다. 서북쪽 안일왕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는 향교와 읍치를 감싸고 있으며, 그 남쪽으로 전천(前川)이 동해로 유입한

다. 도로는 적색으로 표시하였고, 해안을 따라 흥부역, 죽전(竹田), 수산역, 비래봉(飛來峯), 덕신역, 두암(寶巖)이 있다. 읍치 서쪽으로 두천원(斗川院), 소조원(召造院), 광비원(廣庇院), 대흥사(大興寺), 불영사(佛影寺), 고산사우(孤山祠宇)가 있고, 남쪽에는 전천교(前川橋)와 성류굴(聖留窟)이 있다. 향교 북쪽으로 고산성(古山城)이 있으며, 상현면·하현면·근남면·원남면·근북면·원북면·서면 등의 면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31>.



<그림 31> 『해동지도』 「울진현지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2> 『여지도』 「평해군지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평해군지도」에는 군의 서쪽을 남북으로 지나는 낙동정맥에 주령과 삼승령·원수령(元水嶺)이 있으며, 여기서 분기한 줄기가 울진 경계를 따라 금장산·조현(鳥峴)·현종산을 경유하여 해안까지 이어지고, 영해 경계를 따라 청학산(靑鶴山)과 전죽산(箭竹山)을 지나 해안까지 뻗어있다. 서북쪽 주령에서 백암산을 지나온 줄기가 평해읍성과 향교를 감싸고 있으며, 그 남쪽으로 남대천(南大川)이 동해로 유입한다. 도로는 적색으로 표시하였고, 해안을 따라 망양정, 송전(松田), 월송포, 신립역(新立驛)이 있다. 삼승령 아래에는 온정(溫井)이 그려져 있고, 상리면·북하리면·근북면·원북면·남면·근서면·원서면 등의 면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32>. 그리고 울진현과 평해군을 그린 지도의 주기(注記)에는 원호(元戶), 전답(田畓), 곡물총수(穀物總數), 군병총수(軍兵總數), 사방까지의 거리, 창고, 각 면의 초경과 중경, 관애(關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대 도별군현집인 비변사인(備邊司印)이 있는 『영동지도(嶺東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915.16-Y43) 「울진지도」와 「평해지도」에는 1리 방안이 없어 고을의 크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그림 33>, <그림 34>. 방위는 간지 대신 동서남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서쪽이 지도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 산지는 독립된 봉우리 형태로 묘사되어 있으며, 도로는 등급에 따라 적황색·남색·황색으로 구별되어 그려져 있다. 여백의 주기에는 「울진지도」에 호

구·전결·군정(軍丁)·면·창고·도서·역참·황장봉산(黃腸封山)·사방 경계까지의 거리, 「평해지도」에 호구·전결·군정(軍丁)·서울까지의 거리·면·창고·성지·영애·역참·사방 경계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 33> 『영동지도』 「울진지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4> 『영동지도』 「평해지도」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축척 전국지도 제작을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20리 방안지도는 비변사에서 제작한 대축척 전국 군현지도로 전국의 군현을 동일한 크기의 4.2cm 방안에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였는데, 울진과 평해를 그린 20리 방안지도는 『조선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6030](보물 제1587호)를 비롯하여 『지도(地圖)』[한국학중앙연구원, K2-4583], 『팔도지도(八道地圖)』[국립중앙도서관, 韓貴古朝61-21],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 古貴2107-36](보물 제1593호), 『강역전도(疆域全圖)』[일본 동양문고] 등에서 확인된다.

「울진지도」에는 군의 서쪽을 남북으로 지나는 낙동정맥에 직치·석죽산(石竹山)·고초산·봉산(封山)·울룡산(蔚龍山)·검마산(劍磨山)·백암산이 있으며, 여기서 분기한 줄기가 삼척 경계를 따라 백병산·정치산(鼎峙山)·갈령(葛嶺)을 지나면서 해안까지 이어지고, 평해 경계를 따라서는 금장산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숙을비산(宿乙非山)·생달산(生達山)·사립산(簑笠山)·안일왕산·불영산·비파산(琵琶山)·매산(梅山) 등의 봉우리와 건이치(建伊峙)·조성령(鳥城嶺)·내조령(內鳥嶺) 등의 고개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하천이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데, 부천과 죽금천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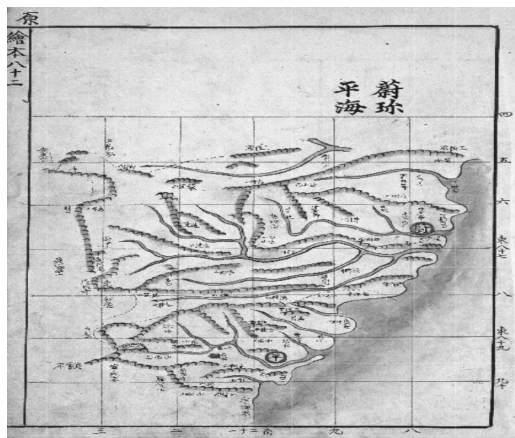
도로는 적색의 원으로 표시한 읍치에서 해안을 따라 남북 경계까지 표시되었는데, 북쪽부터 흥부역, 양장촌(洋場村), 능허정(凌虛亭), 수산역, 주천대(酒泉臺)를 거쳐 덕신역으로 이어진다. 그 외에 두천원, 조원[소조원의 오기], 광비원, 고성(古城), 길곡(吉谷), 정촌리(井村里), 죽변곶(竹邊串)과 상현내면·하현내면·근남면·원남면·근북면·원북면·서면 등의 면 지

명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35>.



<그림 35> 『조선지도』 「울진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6> 『해동여지도』 「울진·평해지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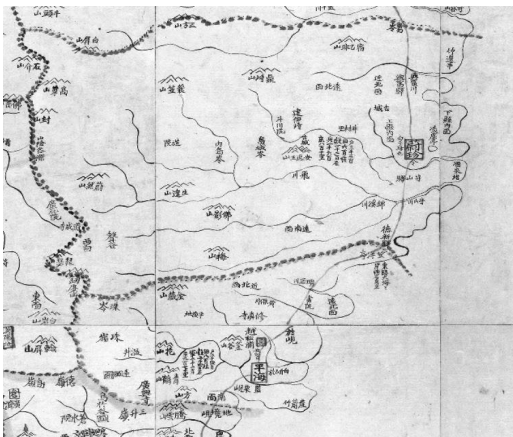
「평해지도」에는 백암산에서 북쪽으로 울진 경계를 따라 금장산·황산(黃山)·현종산·사동산(沙洞山)까지 이어지며, 남쪽으로 영해 경계를 따라 등운산(騰雲山)·갈면산(架面山)·만산(萬山)을 거쳐 지경현(地境峴)까지 뻗어있다. 또한 부곡산·화산(花山)·청학산·전죽산 등의 봉우리와 어현(於峴)·주령 등의 고개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하천이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데, 명정천(明正川, 정명천의 오기)과 황보천(黃保川)이 기록되어 있다.

도로는 적색의 원으로 표시한 읍치에서 해안을 따라 남북 경계까지 표시되었는데, 북쪽부터 망양정, 월송진(越松鎭)을 거쳐 울현(栗峴)으로 이어진다. 그 외에 서원(書院), 수기사[修箕寺, 수신사(修真寺)의 오기], 광흥사(廣興寺), 온정, 고산성, 서창(西倉)과 근북면·원북면·남면·근서면·원서면 등의 면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그림 36>. 서원은 기성면 정명리에 있는 명계서원(明溪書院)이며, 고산성은 백암산성이다.

19세기에는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 등 20리 방안지도를 이용하여 김정호(金正浩)가 1834년(순조 34)에 필사본 『청구도(靑邱圖)』, 필사본 『동여도(東輿圖)』, 1861년(철종 12)에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의 대축척 전국 지도를 제작하였다. 『청구요람(靑邱要覽)』[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21A]에는 20리 방안지도에서 사용된 산, 고개, 사찰, 면 지명이 대부분 표기되어 있다. 산지는 독립된 봉우리 형태로 묘사하였고, 하천은 실선을 사용하였다. 도로는 해안을 따라 적색 실선으로 표시하여 삼척·울진·평해·영해가 연결되고 있다<그림 37>.

반면 『대동여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33]는 목판본으로 제작되면서 지도표(地圖表)라는 범례를 사용하여 『청구도』에서 사용된 지명들이 일부만 선택되고 기호로 단순화

되었다. 면 지명은 삭제되었고, 산은 독립된 봉우리 형태에서 낙동정맥을 따라 백병산에서 시작하여 울연산, 검마산, 광비령, 백암산, 조현을 거쳐 삼승령까지 이어지는 줄기 형태로 묘사되었다. 삼척 경계에는 사립산, 삼방산, 숙비산, 갈령이 위치하고, 등운산과 지경현은 영해 경계에 있다. 지도표의 기호를 적용하여 울진 읍치는 유성(有城), 평해읍치는 무성(無城), 흥부·수산·덕신·달효(達孝)는 역참, 울진포는 성이 있는 고진보(古鎭堡), 월송은 성이 있는 진보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천은 한 줄의 실선으로 판각하였는데, 이것은 울진과 평해의 하천들이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임을 의미한다. 도로는 직선을 사용하여 하천과 구분하고 있는데, 삼척-울진-평해를 연결하는 대로(大路)를 비롯하여 울진-영천(榮川), 울진-영양, 평해-영양, 평해-진보, 평해-영해를 잇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38>.



<그림 37> 『청구요람』 울진·평해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8> 『대동여지도』 울진·평해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편, 『1872년 지방지도』 「울진현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49]는 대부분 지역이 청색으로 채색된 산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태백산에서 분기한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갈령, 고초령, 비래봉만 표시되어 있다. 읍치에는 관사(官舍), 동창, 서창, 읍장시(邑場市), 사직단, 여제단, 성황, 향교 등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면과 동리 지명은 없고, 대흥사·불영사·신흥사(新興寺) 등의 사찰, 매야장시(梅野場市)·흥부장시(興富場市), 석호인 연호(蓮湖), 1860년에 건립된 망양신정(望洋新亭)이 그려져 있다. 동쪽 해안에는 울릉도를 그렸는데, ‘동쪽으로 수로(水路)로 천여 리 거리에 있다.’라는 주기도 함께 기재하였다<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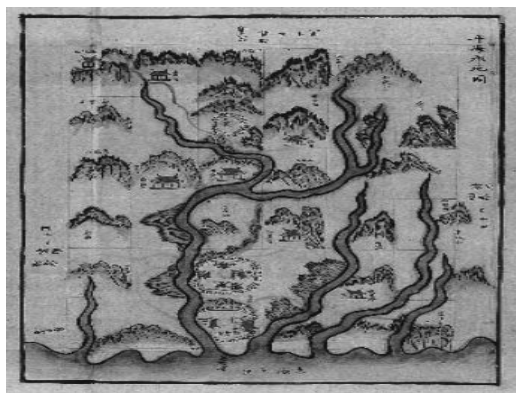
「평해군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45]는 방안을 사용한 군현지도로 제작되었는데, 서쪽을 상단에 두어 동해가 지도의 남단에 위치한다. 산지는 독립된 봉우리로 묘사하였는데, 금장산·백암산·황산·현종산·등운산·마룡산(馬龍山)·오태산(五台山)·주령 등을 표시하였다. 하천은 두 줄로 그려 청색으로 채색하였는데, 별도의 지명 표기는 없다. 상리면·하리

면·근북면·원북면·남면·근서면·원서면 등의 면 지명과 월송정·망양정·환월정(喚月亭) 등의 누정, 계조암(繼祖菴)·광흥사·선암사(仙巖寺)·수진사(修真寺) 등의 사찰, 월송포·후리포 등의 포구가 기록되어 있다. 읍치에는 읍성이 표시되어 있고, 월송진에도 성곽이 그려져 있다. 그 외에 온정, 고산성, 외창(外倉) 등이 있다<그림 40>.



<그림 39> 『1872년 지방지도』 「울진현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40> 『1872년 지방지도』 「평해군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지리지(地理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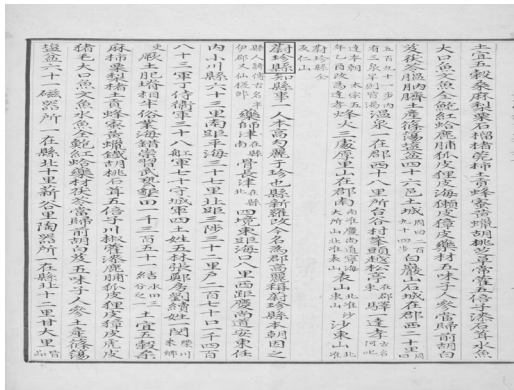
울진현과 평해군 지역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 전국지리지와 『울진현읍지(蔚珍縣邑誌)』·『평해군읍지(平海郡邑誌)』 등의 읍지(邑誌)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리지는 국가 통치를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편찬된 관찬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대표적이다. 1454년(단종 2)에 8권으로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의 강원도 울진현과 평해군에는 지방관의 등급과 인원, 건치 연혁, 별호, 사방 경계까지의 거리, 호구와 군정의 수, 성씨, 풍속, 전결(田結), 토의(土宜), 토공(土貢), 약재, 토산, 염분, 성곽, 온천, 역참, 봉화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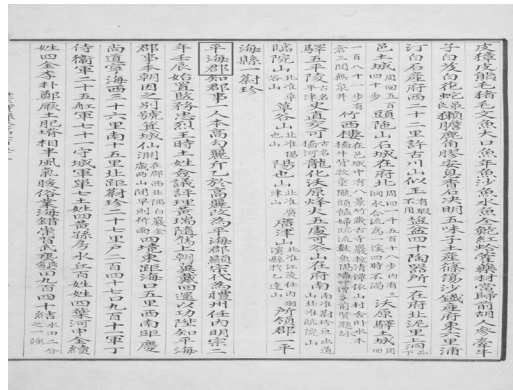
울진현에는 지현사(知縣事) 1인을 두었고, 호수는 270호, 인구는 1,483명이며, 황산석성(皇山石城)을 비롯하여 흥부역 서쪽에 있는 온천, 흥부역·덕신역·수산역, 전반인산(全反仁山)·죽진산(竹津山)·죽변곶(竹邊串)·금출도산(巨出道山) 봉화, 우산도, 무릉도(武陵島)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41>. 평해군에는 지군사(知郡事) 1인을 두었고, 호수는 247호, 인구는 911명이며, 읍 토성과 백암산 석성을 비롯하여 소태곡촌(所台谷村) 봉두(峯頭)에 있는 온천,

월송정, 달효역, 후리산·표산(表山)·사동산(沙東山) 봉화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42>.



<그림 41>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42> 『세종실록지리지』 평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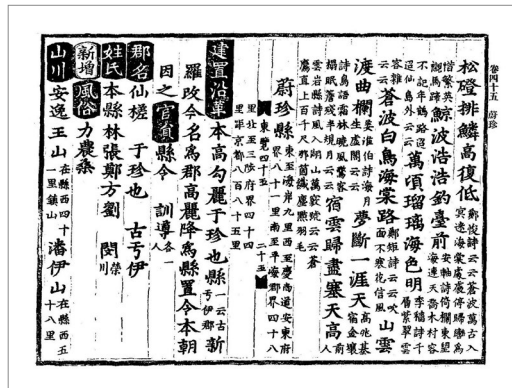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1530년(중종 25)에 55권으로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원도 울진현과 평해군에는 사방 경계와 서울까지의 거리, 건치 연혁, 관원, 군명, 성씨,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누정, 학교, 역원, 불우(佛宇), 사묘(祠廟), 고적, 명환(名宦), 인물,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울진현은 서울까지의 거리가 885리이며, 군명조에는 선사·우진야·고우이(古弓伊), 풍속조에는 ‘농상(農桑)에 힘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천조에는 진산인 안일왕산을 비롯하여 반이산(潘伊山), 잠산(蠶山), 향출도산(恒出道山), 죽변곶(竹邊串), 전천(前川), 우산도, 울릉도, 주인리(周仁里)에 있는 온천 등을 실었다. 성곽조에는 읍성, 관방조에는 울진포영(蔚珍浦營), 누정조에는 능허루(凌虛樓), 학교조에는 향교, 역원조에는 흥부역·덕신역·수산역·가을원(加乙院)·두천원·소조원·광비원, 불우조에는 불귀사(佛歸寺)·천량암(天糧菴)·진관사(眞觀寺)·검산사(劍山寺)·정림사(淨林寺)·성류사(聖留寺), 명환조에는 김중권(金仲權)·어세린(於世麟)·권임(權任)·강응겸(康應謙), 인물조에는 장천익(張天翼)·장순렬(張巡烈)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43>.

평해군은 서울까지의 거리가 971리이며, 군명조에는 근을어·기성, 형승조에는 ‘동남쪽은 바다에 의지하고, 서북쪽은 산을 등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천조에는 진산인 부곡산을 비롯하여 금장산, 백암산, 후리산, 구질리현(仇叱里峴), 선연(仙淵), 소태곡에 있는 온천, 정명포(正明浦), 남대천 등을 실었다. 성곽조에는 읍성(邑城), 관방조에는 월송포영(蔚珍浦營), 누정조에는 풍월루(風月樓)·봉서루(鳳栖樓)·월송정·망사정(望槎亭)·망양정, 학교조에는 향교, 역원조에는 달효역·평등원(平等院)·다시원(多施院)·망양원(望洋院), 불우조에는 백암사(白巖寺)·선암사(禪菴寺)·수진사·심수사(深水寺), 명환조에는 김을권(金乙權), 인물조에는 황서(黃瑞)·황희석(黃希碩)·황현(黃鉉)·손순효(孫舜孝), 효자조에는 이윤(李潤) 등이 기록되

어 있다<그림 44>.



<그림 43>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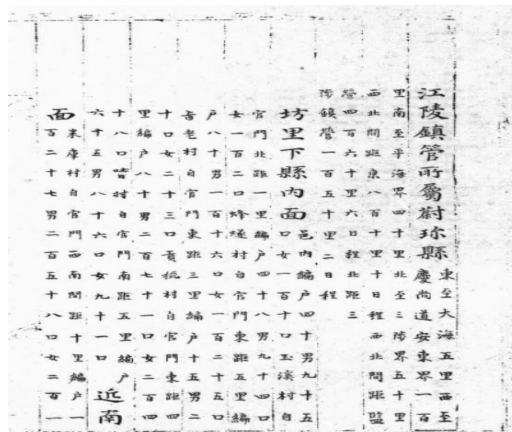


<그림 44> 『신증동국여지승람』 평해군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조선 후기

16세기 이후 향촌 사회에 거주하던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유학자들이 지리지 편찬의 주체가 되면서 다양한 읍지들이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편찬된 읍지가 영조대에 홍문관에서 『여지도서』로 편찬된다. 『여지도서』 울진현과 평해군에는 사방 경계와 서울·감영·삼척 진영까지의 거리, 방리, 도로, 건치 연혁, 군명,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단묘,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 물산, 교량, 역원, 목장, 사찰, 고적, 인물, 한전, 수전, 진공, 조적(糶糴), 전세, 대동, 군세, 봉림(俸廩), 군병 항목이 공통으로 수록되었다<그림 45>, <그림 46>.



<그림 45> 『여지도서』 울진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46> 『여지도서』 평해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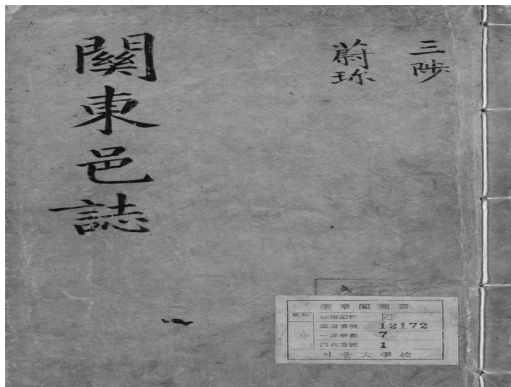
울진현은 서북쪽으로 서울까지 810리 열흘 가는 거리에 있으며, 방리조에는 하현내면·근남면·원남면·상현내면·근북면·원북면·서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지조에는 고산성이 있으며, 산천조에는 태백산(太白山)·백암산·대천(大川)·성류굴·주천대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관애조에는 갈령·고초령·발이령(鉢耳嶺)·조성령·소조령·광현(廣峴)·광비령·직치령이 기재되었고, 인물조에는 남사고(南師古), 효자 주경안(朱景顔)·장서린(張瑞麟)·이개무치(李介無致)·관노 금석(今石), 열녀 장씨(張氏), 효녀 김씨(金氏)가 적혀 있다.

평해군은 서쪽으로 서울까지 970리 열하루 가는 거리에 있으며, 방리조에는 상리면·하리면·남면·근서면·원서면·근북면·원북면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천조에는 백암산·부곡산·현종산·하암(霞巖)·선연·온천·남대천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누정조에는 오월루(梧月樓)·애련당(愛蓮堂)·월송정·망양정이 기재되었고, 인물조에는 황서·황희석·황현·손순효·황응청(黃應淸)·이명유(李命裕)·정담(鄭湛)·김담(金譚)·황여일(黃汝一)·장효갑(張孝甲)·장온(張蘊), 효자 이운·안응준(安應俊)·남시발(南時發), 열녀 남씨(南氏)·우조이(禹召史)가 적혀 있다.

1830년경 순조 대에 간행된 『관동지(關東誌)』[국립중앙도서관, 古2780-1]는 1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지도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울진읍지』와 『평해군지』는 9책에 실려 있다. 『울진읍지』에는 「울진지도」와 선생안(先生案)을 서두에 두고, 사방 경계와 서울·감영·삼척 진영까지의 거리, 방리, 도로, 건치 연혁, 군명, 형승, 성지, 관직, 산천, 성씨, 능침, 단묘, 공해, 제영, 제언, 물산, 교량, 역원, 목장, 관애, 사찰, 고적, 진보, 인물, 진공, 조적, 군세, 봉름, 군병, 책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능침·봉수·진보·책판조에는 내용이 없다. 선생안에는 고려 후기 김종권부터 1826년(순조 26) 6월까지 현령을 지낸 이한정(李漢井)까지 179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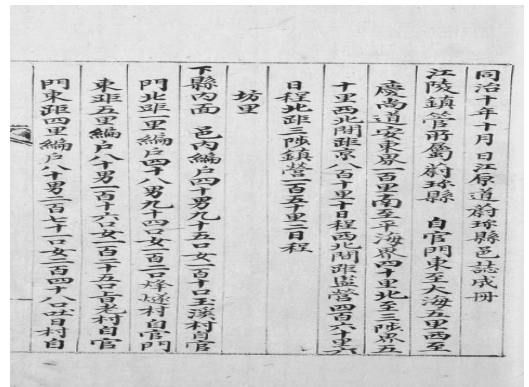
『평해군지』에는 「평해군지도」와 선생안을 서두에 두고, 방리, 도로, 건치 연혁, 군명, 형승, 성지,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 단묘, 공해, 제언, 창고, 물산, 교량, 봉름, 군세, 조적, 진공, 전부, 인물, 진보, 고적, 사찰, 누정, 봉수, 관애, 목장, 역원, 군병, 책판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능침·봉수·목장·책판조에는 내용이 없다. 선생안에는 지군사를 지낸 이양(李壤)부터 1827년 6월까지 군수를 역임한 채학영(蔡學永)까지 181명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고종 대에 이르면 1871년(고종 8), 1895년(고종 32), 1899년(광무 3) 등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읍지가 편찬된다. 이 중 강원도지(江原道誌)는 1871년에 전국 읍지상송령에 따라 강원도 26개 읍에서 만들어 올린 읍지를 총 7책으로 편찬한 『관동읍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172]가 있는데, 『울진현읍지』는 1책, 『평해군읍지』는 2책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내용상으로는 앞서 편찬된 『여지도서』를 바탕으로 이후 시기에 증보된 군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례(事例)는 없다<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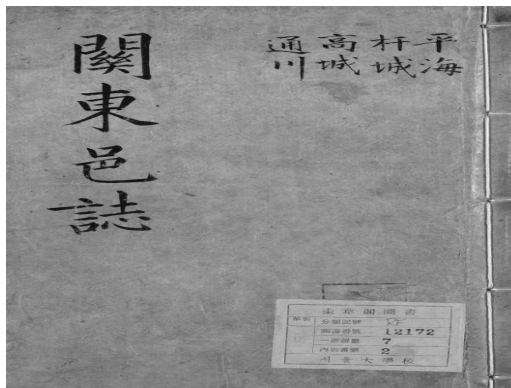
<그림 47> 『관동읍지』 제1책 표지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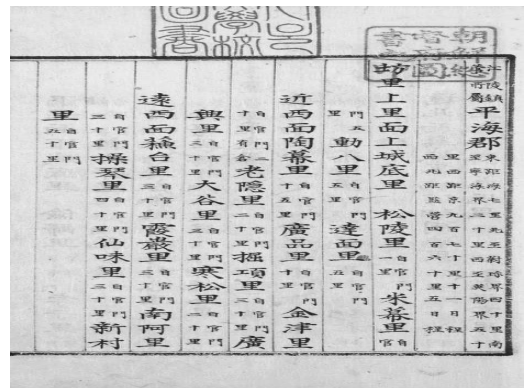
<그림 48> 『관동읍지』 「울진현읍지」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49> 『관동읍지』 제2책 표지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50> 『관동읍지』 「평해군읍지」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진현읍지』는 ‘동치십년십월일강원도울진현읍지성책(同治十年十月日江原道蔚珍縣邑誌成冊)’이라는 제목이 있어 읍지 작성의 시기가 동치 10년, 즉 1871년임을 알 수 있다. 구성은 「울진현지도」를 가장 앞에 두고, 이어서 사방 경계와 서울·감영·삼척진영까지의 거리, 방리, 도로, 건치 연혁, 군명, 형승, 성지, 산천, 능침, 단묘, 공해, 제언, 교량, 역원, 관애, 봉수, 누정, 사찰, 고적, 진보, 인물, 진공, 조적, 군세, 봉름, 군병, 현령선생안 순으로 되어 있는데, 능침·봉수·진보조에는 내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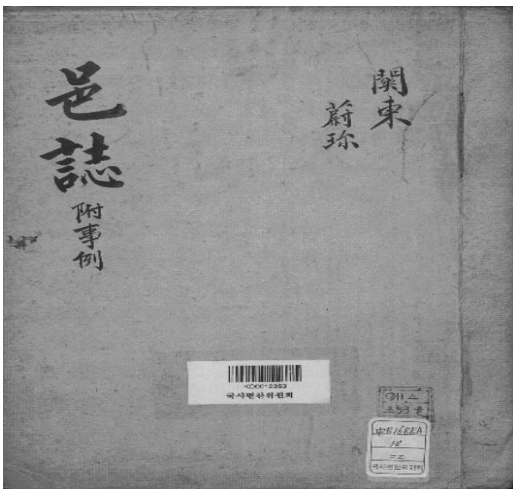
방리조에는 면과 소속 동리의 민호(民戶)와 남녀 인구수를 자세히 실고 있는데, 『여지도서』와 동일한 기묘년(1759)의 장적(帳籍)을 기준으로 하였다. 형승조에는 성류굴과 주천대·능허대, 성지조에는 고산성과 죽변진곶, 산천조에는 태백산·백암산·숙을비산·대천·관전천·흥부천을 기록하였다. 누정조에는 현 남쪽 10리 둔산(屯山)에 있는 망양정이 수록되어 있다. 선생안에는 고려 후기 김종권부터 1871년 1월까지 현령을 지낸 김봉년(金鳳年)까지 현령을

지낸 김봉년(金鳳季)까지 197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평해군읍지』는 방안을 사용한 「평해군지도」를 제일 앞에 실었으며, 사방 경계와 서울·감영까지의 거리, 방리, 호구, 건치 연혁, 군명, 관직, 형승, 성지, 도로, 성씨, 산천, 풍속, 전부, 요역(繆役), 군세, 창고, 조적, 관애, 군액, 학교, 단묘, 봉수, 공해, 사찰, 목장, 시장, 교량, 도서, 제언, 누정, 어염(魚鹽), 토산, 진공, 약재, 고적, 봉름, 과거(科擧), 인물, 읍선생서(邑先生序), 읍선생, 진보, 역원 순으로 되어 있는데, 봉수·도서조에는 내용이 없다.

방리조에는 주요 면과 관문에서 각 소속 리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민호는 2,495호, 남자는 4,935명, 여자는 6,82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조에는 조선 전기의 황온인(黃溫仁)부터 황중윤(黃中允)까지 34명의 관직을 기록하였고, 인물조에는 황희로(黃希老)부터 열녀 우조이까지 고려 및 조선시대의 평해 황씨와 평해 손씨를 중심으로 모두 69명을 수록하였다. 읍선생서는 1733년(영조 9)에 신유한(申維翰)이 썼다. 선생안에는 지군사를 지낸 이양(李壤)부터 1871년 6월까지 군수를 역임한 이용익(李容益)까지 202명의 부임 및 체임 시기가 잘 정리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울진현읍지』[국사편찬위원회, KO중B16BBA 14]와 『평해읍지』[국사편찬위원회, KO중B16BBA 28]가 있는데, 1871년에 편찬된 『관동읍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그림 51>,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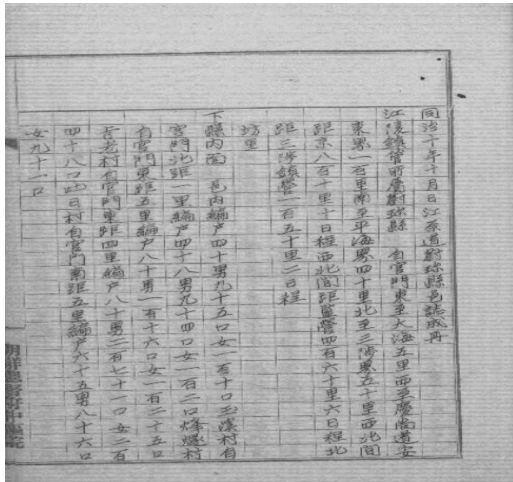
<그림 51> 『울진현읍지』 표지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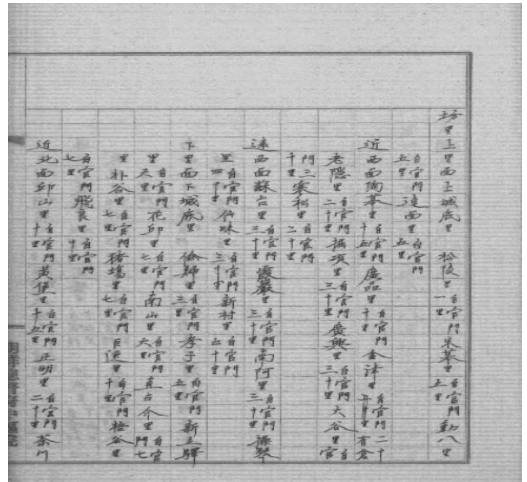
<그림 52> 『평해군읍지』 표지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53> 『울진현읍지』 방리조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54> 『평해군읍지』 방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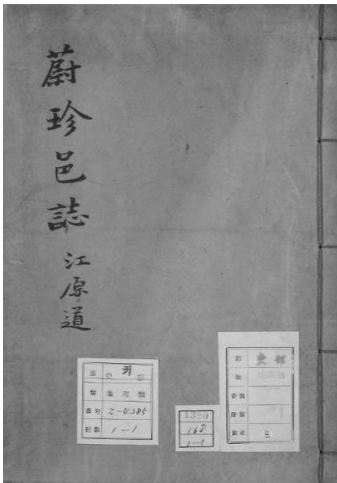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울진읍지』[한국학중앙연구원, 귀K2-4285]와 『평해읍지』[한국학중앙연구원, 귀K2-4330]가 있는데, 1899년 광무개혁기에 제작된 읍지로 추정된다<그림 55>, <그림 56>. 『울진읍지』는 「울진현지도」, 읍선생안서, 현령선생안, 산천, 풍속, 인물·성씨, 절의·명환, 토산, 진공, 결충, 호구, 조적, 관전, 능묘, 아사, 원우, 누대, 사찰, 봉수, 진보, 형승·제영, 관원, 봉름, 건치 연혁, 별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선생안서는 1713년(숙종 39)에 울진현령 이상성(李相成)이 지은 것이며, 선생안에는 고려 후기 김종권부터 1899년 1월까지 군수를 지낸 김상일(金相一)까지 실려 있다.

『평해읍지』는 「평해군지도」, 사방 경계와 서울·춘천부까지의 거리, 방리, 결충(結摠), 호충(戶摠), 건치 연혁, 군명, 관직, 봉급(俸給), 형승, 성지, 도로, 성씨, 산천, 풍속, 선염곽세(船鹽舊稅), 창고, 조적, 관애, 진보, 군액, 학교, 단묘, 봉수, 공해, 사찰, 역원, 장시, 교량, 도서, 제언, 누정, 진공, 고적, 봉름, 인물, 신장정(新章程), 고적, 제영, 토산, 과거, 군선생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평해읍지』에는 여러 항목에서 19세기 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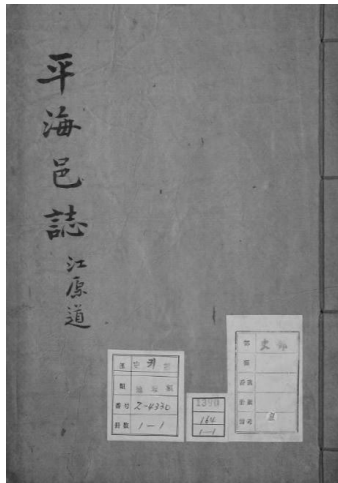
호초조에는 무망(無亡) 호를 제외한 실시간호(實時存戶)가 1,673호로 기록되어 있고, 관직조에는 평해군이 4등군에 속한다는 사실과 함께 봉급조에 군수의 봉급 내역이 적혀 있다. 선염곽세조에는 세전(稅錢)의 총량과 상납 시기, 상납처 등이 나오며, 신장정조에는 19세기 말 부세 제도 변화에 따른 결전(結錢)의 내역,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군수 및 관속들의 연봉과 향사비·청비(廳費)·여비(旅費)가 수록되어 있다. 군선생안에는 지군사를 지낸 이양부터 1897년 12월까지 평해군수를 역임한 정현조(鄭賢朝)까지 215명의 부임 및 체임 시기가 잘 정리되어 있다. 『평해읍지』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평해군읍지』[奎10969]의 수록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순조 대에는 1908년(융희 2)에 편찬된 필사본 『울진군여지약론(蔚珍郡輿地略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968] 1책이 전한다<그림 57>.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편찬된 울진군의 읍지 3종을 합본한 책으로, 『강원도울진군여지약론(江原道蔚珍郡輿地略論)』과 『울진군읍지』, 『울진군군지』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울진군여지약론』은 1908년 울진군수 유한용(劉漢容)이 저술한 읍지인데, 위치급경계(位置及境界), 연혁, 해안(海岸), 지세(地勢), 산경(山經), 수원(水源), 기후(氣候), 민족(民族), 이속(吏屬), 습관(習慣), 삼림(森林), 관제(官制), 호구, 인민상태(人民狀態), 사법(司法), 전세(田稅), 농산물, 직조물, 해산물, 상업, 경요여열(經擾餘藥), 교육, 도로교량급통신(道路橋梁及通信), 명승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읍지들과는 다른 근대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울진군읍지』는 1899년에 편찬된 『울진읍지』[한국학중앙연구원, 귀K2-4285]와 내용이 일치한다.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울진군군지』는 『울진군읍지』와 항목 수록 순서에서 차이가 있지만, 수록 항목은 거의 같다. 다만 『울진군군지』의 선생안에는 『울진군읍지』의 선생안 내용에 1899년 12월까지 재임한 군수 김용규(金容圭)와 1900년 11월에 체임된 이규목(李圭穆)이 추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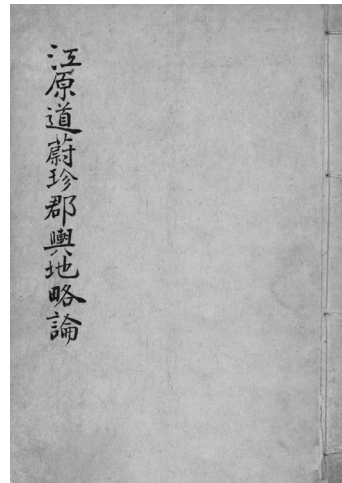
<그림 55> 『울진읍지』 표지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56> 『평해읍지』 표지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57> 『울진군여지약론』 표지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평해제3로(平海第三路)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 수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로는 역참의 구축으로 집약되었고, 전국의 도로망은 역참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역로(驛路)가 군사·행정상의 통신 기능을 지니고 있어 도로의 방향이 지방행정 중심지나 군사 지역 중심으로 되어 관로(官路)

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²¹ 그러므로 모든 간선도로는 서울로 통하게 되었고 도로의 설치·보수·확장 등은 군사들의 이동, 역참의 설치, 파발의 운용 등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다.²²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권6 「공전(工典)」 교로(橋路)조에 잘 나타나 있다.²³ 교로조에 보면 도(道)와 로(路)의 구분 없이 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하면서 도로의 종류와 노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로를 분류함에 있어 도성 안의 도로에 대해서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여 너비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데, 대로는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으로 하고 도량은 너비 2척으로 정하고 있다. 도로의 기준점은 도성 내에서는 궐문(闕門)으로 하고 각 지방과의 기준점은 성문(城門)을 기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대로의 기준은 노폭(路幅)보다는 역마(驛馬)와 역민(驛民)의 수 및 원호(院戶)의 분포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²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전국의 도로는 번호 붙임 등으로 조직화되어 가는데, 전국 도로망을 6대로, 9대로, 10대로로 구분하기 시작한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지리지 중에서 대로를 언급한 문헌으로는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1770년(영조 46)에 저술한 『도로고(道路考)』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중 『여지고(輿地考)』, 그리고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정리고(程里考)」 등이 있다. 『도로고』에서는 6대로, 『여지고』에서는 9대로, 『대동지지』에서는 10대로로 전국의 대로를 나누었는데, 경성(京城)에서 평해로 가는 대로는 모두 제3로로 명칭을 붙였다. 특히, 『도로고』에는 당시 전국 333개 군현을 6대로에 편성하였으며, 평해제3로(平海第三路) 울진군 경유 구간의 대로에는 울진현과 평해군이 포함되어 있다.

1) 평해제3로의 경로와 성격

신경준은 『도로고』를 통해 당시에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 계통적으로 정리하였다. 권1에서 우리나라의 뼈대에 해당하는 6대로를 경(經)으로, 혈관을 이루는 방통로(旁通路)를 위(緯)로, 권3에서 국토 외곽을 연결하는 사연로(四沿로)를 주위(周圍)로 보았다. 권4에서 국토의 외연을 두르는 해로(海路)를 중심으로 도로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도로망 체계를 경, 위, 주위 순으로 서술하였다. 또 개별적으로 언급된 각 도로들을 사연(四沿) 안

21. 한국도로공사 편, 1981, 『한국도로사』, 한국도로공사, 92쪽

22. 정연식, 1999,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544쪽

23. 도성 안의 도로 [대로는 너비가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이다. 양옆의 수구(水溝)는 너비가 각 2척이다<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만일 도로를 침범하여 점령하거나 길에서 흙을 파 가거나, 혹은 오물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해당 부(部)의 관리(官吏) 및 관령(管領)을 모두 벌준다. 내[池]·연못[池]·성(城)과 담은 부근의 주민에게 분담시키고 장부에 기록하여 간수(看守)하게 한다. … 지방의 도로는 십 리마다 소후(小垸)를 세우며, 삼십 리마다 대후(大垸)를 세우고 역을 설치한다[후(垸)에는 이수(里數)와 지명(地名)을 새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역사연구실 편, 1985, 『(역주)경국대전 : 번역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83쪽)

24. 최영준, 1975, 「조선시대의 영남로 연구 : 서울-상주의 경우」 『지리학』 12, 59쪽

에 유기적으로 엮여 당시까지 축적된 지식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역의 범위를 『도로고』 안에 설정하고 있다. 특히 6대로는 각 대로의 경로와 거리 및 각 대로에서 주요 읍치에 이르는 방통로의 경로와 거리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경성에서 의주까지 가는 의주제1로를 기준 삼아 시계 방향으로 경흥제2로, 평해제3로, 동래제4로, 제주제5로, 강화제6로 순으로 이름을 붙였다<표 12>.

<표 12> 『도로고』 6대로 구간과 거리

대로번호	명칭	구간	거리(리)
1	경성서북저의주로제1	경성 - 개성 - 황주 - 평양 - 안주 - 의주 - 압록강	1,085
2	경성동북저경흥로제2	경성 - 덕원 - 함흥 - 경성(鏡城) - 경흥 - 서수라보	2,504
3	경성동저평해로제3	경성 - 양근 - 지평 - 원주 - 강릉 - 삼척 - 평해	865
4	경성동남저동래로제4	경성 - 용인 - 충주 - 대구 - 밀양 - 동래 - 부산진	937
5	경성서남저제주로제5	경성 - 공주 - 삼례 - 나주 - 해남 - 관두량 - 제주	970
6	경성서저강화로제6	경성 - 김포 - 통진 - 강화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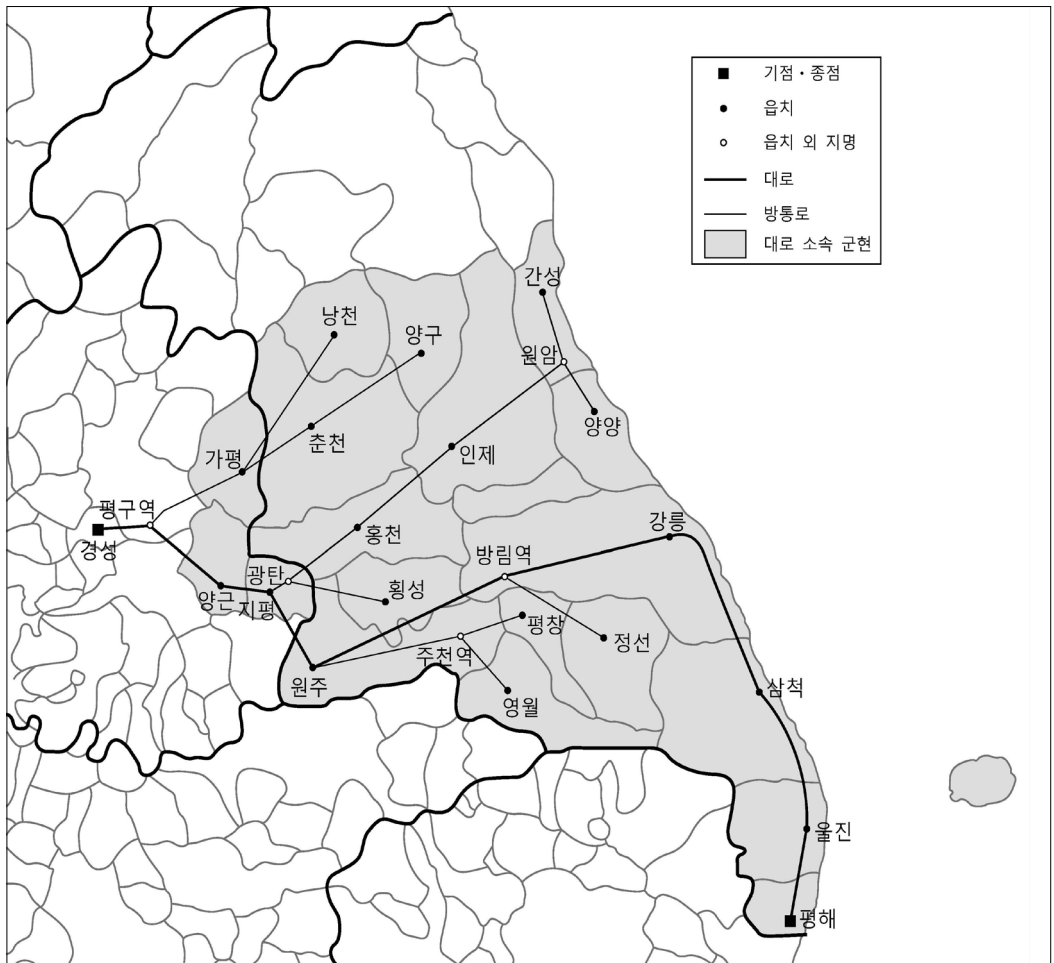
※ 제1로는 의주까지 1,075리이다. 제2로는 경흥까지 2,444리이다. 제4로는 동래까지 907리이다.

6대로는 단순한 도로라기보다는 해당 대로 주변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의주제1로는 평안도와 황해도 전 지역 및 경기 일부를 포함하며, 경흥제2로는 함경도 전 지역과 강원도 및 경기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의주로라고 하면 평안도 가는 길, 경흥로라고 하면 함경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평해로라고 하면 강원도 가는 길, 동래로라고 하면 경상도 가는 길, 제주로라고 하면 충청도·전라도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6대로는 경성을 중심으로 333개 읍치까지 가는 경로와 거리를 보여주는 도로망이다. 의주제1로는 72개, 경흥제2로는 39개, 평해제3로는 19개, 동래제4로는 82개, 제주제5로는 114개, 강화제6로는 7개의 읍치가 각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평해제3로의 범위에는 경기도 2읍과 경기도 1읍 등 경기 3읍, 강원 영서 10읍과 강원 영동 6읍 등 강원도 16읍이 포함된다. 즉 경성에서 양근과 지평을 경유하여 원주, 강릉, 삼척, 울진을 거쳐 평해에 이르는 대로는 7개의 읍치가 속해 있으며, 나머지 12개 읍치는 방통로에서 연결된다<표 13>, <그림 58>.

<표 13> 평해제3로의 읍치

도명	읍치 수	읍치 명
경기	3	양근(楊根), 지평(砥平), 가평(加平)
강원도	16	원주(原州), 강릉(江陵), 삼척(三陟), 울진(蔚珍), 평해(平海), 춘천(春川), 양구(楊口), 낭천(狼川, 화천군 화천읍), 홍천(洪川), 인제(麟蹄), 간성(杆城, 고성군 간성읍), 횡성(橫城), 양양(襄陽), 영월(寧越), 평창(平昌), 정선(旌善)



<그림 58> 평해제3로와 방통로

출처 : 류명환, 2014, 『여암 신경준과 역주 도로고』, 역사문화

평해제3로는 경성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간선 교통로로서 행정·군사 기능 외에도 상업 기능을 반영한 대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로고』 서문에서 상점과 수공업 점포를 의미하는 포점(鋪店)의 차례를 밝힌다고 하여 상업 사회로의 변화를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대로가 경유하는 지명에 있어 역(驛)·참(站)·원(院) 외에도 장(場)·점(店) 등이 나타나고 있다.

평해제3로에는 식송점(植松店)·월정가점(月精街店) 등 점·장의 기능을 가진 취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도로고』의 말미에 전국의 장시를 담은 것으로 보아 6대로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되면서 체계적인 상품 유통망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업도시가 곳곳에서 탄생되고 있었다.²⁵ 덧붙여 대로는 역대의 실록(實錄)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사고(史庫)로 연결되는 경로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평해제3로에서는 상원사(上院寺)와 월정사(月精寺) 중간에 설치된 오대산사고가 월정가점에서 연결된다.

2) 울진군 경유 구간의 평해제3로 현황

평해제3로는 경성에서 망우리현(忘憂里峴)[25리] - 왕산탄(王山灘)[13리] - 평구역(平邱驛)[7리] - 봉안역(奉安驛)[25리] - 고랑진(高浪津)[7리] - 이수두리(二水頭里)[3리] - 월계(月溪)[10리] - 덕곡(德谷)[20리] - 양근(楊根)[10리] - 백현(百峴)[15리] - 지평(砥平)[15리] - 전양현(前陽峴)[20리] - 송치(松峙)[25리] - 안창역(安昌驛)[15리] - 원주(原州)[30리] - 식송점(植松店)[20리] - 오동원역(梧桐院驛)[30리] - 안흥역(安興驛)[20리] - 운교역창(雲橋驛倉)[30리] - 방림역(芳林驛)[30리] - 대화역창(大和驛倉)[20리] - 청심대(淸心臺)[40리] - 진보역(珍寶驛)[10리] - 월정가점(月精街店)[10리] - 홍계역(洪溪驛)[15리] - 대관령상(大關嶺上)[10리] - 구산역(丘山驛)[20리] - 강릉(江陵)[20리] - 우계(牛溪)[60리] - 평릉역(平陵驛)[30리] - 삼척(三陟)[30리] - 교혈역(交歇驛)[20리] - 용화역(龍化驛)[30리] - 오원창(梧院倉)[40리] - 갈령(架嶺)[20리, 북면 나곡리] - 울진(蔚珍)[40리] - 수산역(守山驛)[10리, 근남면 수산리] - 덕신역(德新驛)[20리, 매화면 덕신리] - 망양정(望洋亭)[10리, 기성면 망양리] - 월송진(越松鎭)[30리, 평해읍 월송리] - 달수역(達水驛, 達孝驛)[5리, 평해읍 월송리] - 평해(平海)[5리]로 경로가 이어진다. 이 중 울진군을 경유하는 구간은 현재의 북면 나곡리에 위치한 갈령에서부터 평해읍 평해리에 있었던 평해읍치까지 120리로 전체 865리 중 약 1/7에 이른다.

동시대에 신경준이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조선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6030]를 비롯하여 김정호가 편찬한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갈령에서 동해안을 따라 흥부역과 울진읍치, 수산역, 덕신역, 월송포를 경유하여 평해읍치로 연결되는 도로를 묘사하고 있어 평해제3로의 경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그림 35>, <그림 37>,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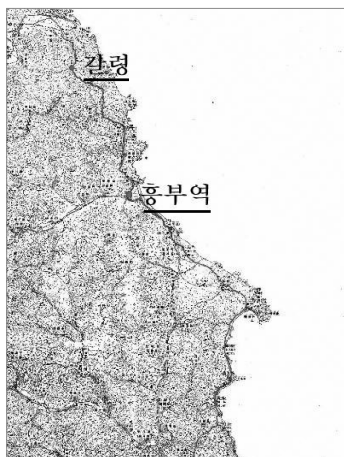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고지도에서는 대로를 대략적으로 묘사하여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또 현재의 지도에서도 도로 건설과 시가지 개발 등으로 지역

25. 한영국, 1991,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배경」 『한국사 시민강좌』9, 일조각,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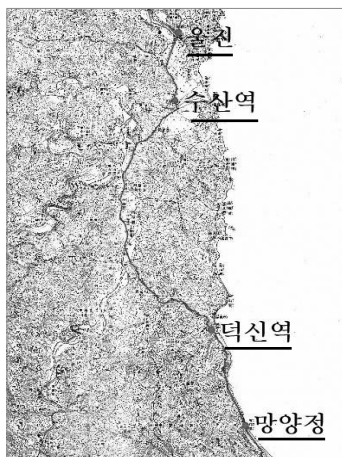
의 변화가 심하여 그 경로를 유추하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옛 모습을 비교적 잘 기록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1917년에 제작한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이하 『조선지형도』) 중 흥부동[興富洞, 울진10호], 울진[蔚珍, 울진11호], 평해[平海, 울진12호] 도엽에서 평해제3로의 울진군 경유 구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59>, <그림 60>, <그림 61>.

『조선지형도』 흥부동 도엽에는 울진과 삼척 경계에 위치한 갈령치부터 남쪽으로 지금의 울진을 고성리에 이르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로는 구 국도 제7호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55>. 갈령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울진)에 “가을현(加乙峴)은 현 북쪽 44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울진)에는 “갈령은 숙을비산에서 한 줄기가 북쪽으로 들어와 갈령산이 된다. 관아에서 북쪽으로 50리이다.”라고 수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울진현과 삼척도호부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고개였다. 현재 정상에는 ‘자유수호의 탑’이 건립되어 있으며, 인근의 나곡리에는 조선시대 향출도산 봉수가 있던 봉화산과 울진의 특산물인 고포미역을 생산하는 고포마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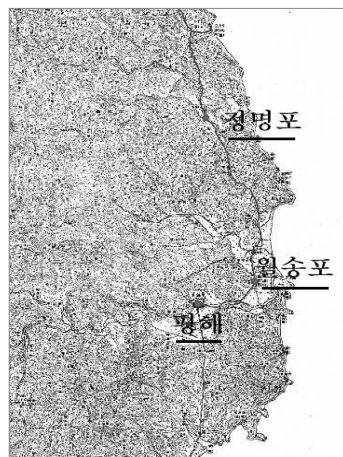
부구리에 있었던 흥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울진)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오랜 역으로 조선 후기부터 흥부장이 열리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옛길이 있던 곳에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죽변항을 지나 봉평리에는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있고, 고성리에는 『세종실록지리지』(울진)에 황산석성(皇山石城)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산성(古山城)이 있는데, 울진읍성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59> 『조선지형도』 흥부동
출처: 『(근세)한국오만분일지형도』
(경인문화사, 1982)



<그림 60> 『조선지형도』 울진
출처: 『(근세)한국오만분일지형도』
(경인문화사, 1982)



<그림 61> 『조선지형도』 평해
출처: 『(근세)한국오만분일지형도』
(경인문화사, 1982)

『조선지형도』 울진 도엽에서는 울진 읍내에서부터 기성면 망양리까지의 평해제3로를 추

정할 수 있는데, 구 국도 제7호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지금의 울진읍 읍내리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읍성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울진군청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 수산역은 근남면 수산리에 있었던 역으로 『세종실록지리지』(울진)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인근의 비래봉에는 수군만호가 있었던 울진포진이 있었고, 왕피천변에는 울진엑스포공원이 있다. 덕신역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울진)에 수록되어 있는 역으로 남쪽에 현종산이 위치한다. 기성면 망양리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망양정 옛터에 새롭게 정자를 조성해놓았으며 그 앞쪽에는 기성망양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조선지형도』 평해 도엽에서는 정명포, 월송포를 거쳐 평해제3로의 종점인 평해까지의 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데, 흥부동 및 울진 도엽과 마찬가지로 구 국도 제7호선과 거의 함께한다. 정명포는 『신증동국여지승람』(평해)의 기록에 의하면 척후소(斥候所)가 있던 곳으로 그 앞으로 고려 원종 때 황서(黃瑞)가 이름을 붙인 정명천이 흐른다. 월송포는 수군만호가 있던 진(鎭)으로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이 그 안에 있었다. 평해제3로의 종점에 해당하는 평해는 고려 충렬왕 때 평해군으로 승격되었다. 평해읍 평해리에는 읍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평해읍행정복지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북쪽에 평해향교가 있다.

3) 평해제3로의 현대적 가치

『도로고』 평해제3로 울진군 경유 구간은 울진의 입구인 북면 나곡리 갈령치에서 시작하여 대로의 종점인 평해읍 평해리까지 이어지는 120리가량 되는 긴 경로이다. 울진은 과거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행정·군사·상업 기능을 담당하였던 대로와 함께 울릉도를 왕래하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또, 『도로고』에는 조선 후기에 발달하였던 울진의 읍내장, 흥부장, 매야장(梅野場)과 평해의 읍내장, 정명장 등 울진군에 소재한 장시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승하여 현재는 울진장[2·7일]과 죽변장[3·8일], 매화장[4·9일], 흥부장[1·6일], 평해장[2·7일], 후포장[3·8일], 척산장[1·6일] 등 대부분의 5일장이 구 국도 제7호선을 따라 분포한다. 이 길은 울진의 중심지인 울진읍과 평해읍을 경유하며, 죽변항·봉평리 신라비·연호정(蓮湖亭)·울진엑스포공원·성류굴·망양정·해월헌(海月軒)·월송정 등 울진의 명소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국토 개발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고속도로 또한 강릉·삼척까지만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9월에는 북면 부구리에 혐오시설인 울진원자력 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울진군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이 2022년 개통을 하면 포항과 삼척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도 제7호선에 의존하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울진은 군민들의 노력으로 청정바다와 금강송, 온천이 어우러져 해수욕과 삼림욕, 온천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양도시로 그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천혜의 자연조건은 도시민들에게는 가보고 싶은 울진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배경은 울진이 가진 경관과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표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평해제3로 대부분의 경로가 국도 제7호선과 겹치기 때문에 옛길의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길은 대로 구간에 소재한 향교, 장시, 정자 등 울진이 가진 역사·지리적 유산을 비롯하여 지명, 전설 등을 함께 묶어 울진만이 가지는 좋은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인구

울진군의 인구는 1966년에 117,602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49,31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선시대 울진현과 평해군의 인구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하여 『여지도서』, 『호구총수(戶口總數)』, 『울진현읍지』, 『평해군읍지』 등의 지리지, 「울진현지도」·「평해군지도」 등 울진현과 평해군을 그린 지도의 주기에 기록된 호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 조선시대의 인구

울진현과 평해군의 호수(戶數)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울진현의 호구는 270호 1,483명, 평해군의 호구는 247호 91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영조대에 제작된 『여지도서』에는 방리별 호수와 남녀별 인구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묘년(己卯年) 장적에 따랐기 때문에 1759년(영조 35)의 호구가 반영되어 있다. 당시 울진현은 7개면, 3,398호 14,436명이며 남자는 7,188명, 여자는 7,24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평해군은 7개면, 2,584호 12,022명이며 남자는 5,665명, 여자는 6,35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비변사에서 제작된 『영동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915.16-Y43] 「울진지도」의 주기에 3,408호 14,460명[남 7,203명, 여 7,257명]이며, 「평해지도」의 주기에 2,443호 12,143명[남 5,725명, 여 6,418명]이다. 한편 『해동지도』와 『지승』의 「울진현지도」에는 3,238호, 「평해군지도」에는 2,448호로 수록되어 있고, 『광여도』·『여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68]·『팔도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14]의 「울진현지도」에는